

쓰레기종량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박성배/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 종량제 담당

1. 종량제 1개월

세계화 원년, 올해년 복돼지 최고의 선물(?) 쓰레기종량제가 산고를 거쳐 고성을 울리고 세상에 나오는 순간 대도시의 주택가는 온통 쓰레기 더미에 묻혀 일대 혼역을 치루었다. 유사 이래 쓰레기가 이렇게 대접(?) 받아 보는 것도 처음이라. 각종 매스콤은 '전국 쓰레기로 몸살', '종량제 시작부터 엉망' 등 당국의 준비부족과 시민의식의 실종을 질타하는 양비론으로 시작된 종량제 홍보(?)와 국민의 절대적인 공감을 얻어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실시 한 달이 지난 2월 1일 현재 전국의 규격봉투 사용률은 99%에 이르며, 또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35% 줄고, 재활용품은 50% 정도 늘어났다.

과대료 부과 등 규제를 병행해 참여를 유도했지만 종량제는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생산 유통업체들은 비닐봉투 사용과 과대포장을 자제하고 있다. 규격봉투 사용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로 아파트 쓰레기장과 주택가 골목길이 눈에 띄게 깨끗해 졌다. 쓰레기 줄이기도 확산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1.5kg에서 1kg 내외로 크게 줄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환경보존 의식이 높아진 것을 가장 큰 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이 환경보존을 위한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과거처럼 개발 목적을

내세워 환경파괴적인 시책을 펴는 것을 강력히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긍정적 효과의 하나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분리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들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는 문제는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다.

현재 사용중인 규격봉투는 썩지 않는 재질로 돼 있어 궁극적으로는 썩는 비닐을 개발 사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개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분 지역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다.

2. 쓰레기종량제 이후 달라진

모습-소비자의 변화(선택구매)

쓰레기도 버릴 때 돈이 든다는 인식이 정착되어 쓰레기 많이 나오는 과대포장상품을 기피하고 알맹이만 구매한다든지 쓰레기봉지 한 장을 덜 쓰는 지혜의 개발에 묘안(쓰레기 줄이는 요령백태(표 1)이 속출하고 양심불량식 절감작전이 연출(표 2)되는 등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달라진 모습(표 3)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한다던가 리필제품을 선호하고, 비닐봉지 한 장도 쓰레기가 된다는 인식 확산으로 장바구니 들기나 보자기를 사용한다든지 환경상품에 대한 관심 등을 들 수 있겠다.

3.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는 쓰레기종량제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산업계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소비자 및 유통부문의 인식변화에 따른 제품판매 감소

▲ 대체재 개발 및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비용부담이 증가

▲ 제품생산과정의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 등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감량, 재활용 촉진,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장폐기물 삭감 및 재활용의 무규정 등 수출과 관련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등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평가되며, 업종별 영향은 다르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재활용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1) 포장업계

포장재 생산업계는 소비자 및 산업계의 포장재 감량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로 삼프나 세제 등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채택하고 있는 리필(Refill) 포장제품은 앞으로 탈취제, 방향제, 섬유유연제, 립스틱, 기초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널리 확산되어 판매시장이 확산될 전망이며, 고지를 재활용한 완충재 등의 생산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포장업계는 포장디자인보다는 포장재 감량화 및 재활용하는 기술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라면, 과자류의 대단위 묶음 포장

[표1] 쓰레기 줄이는 요령 백태(쓰레기 줄이기 묘안 속출)

- ▲ 포장지 벗기고 알맹이만 구입-알맹이만 주세요
- ▲ 장바구니 사용하면 비닐봉지 홍수 덜 수 있어-비닐봉지도 쓰레기로 인식
- ▲ 리필제품 사용
- ▲ 음식찌꺼기 퇴비화 방법 강구, 퇴비화 용기 구입 사용
- ▲ 음식찌꺼기 처리 위해 식당 등 고속발효처리기 설치 등
- ▲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비닐 봉투는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묶어 부피를 줄여 배출
- ▲ 종이 귀저기, 종이접시 등 1회용품 사용 자제
- ▲ 신문지는 배달되는 형태로 광고지 포함 한달치 정도를 묶어서 배출
- ▲ 평소 우유를 마시고 종이팩을 그냥 버렸으나 지금은 우유팩을 펴서 말린 후 묶어서 월 1회 정도 재활용품으로 배출
- ▲ 캔, 병, PET병 등 용기는 물로 행군 후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에 담아 배출
- ▲ 에어졸, 부탄가스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재활용품으로 배출
- ▲ 배달 짜장면 먹은 뒤 '스티로폴 그릇 가져가라'에 어차피 그릇 가져올 바에야 플라스틱 그릇으로 교체
- ▲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대리점에 현 냉장고와 포장박스를 회수해 가는 조건을 제시, 대리점에서는 처리에 골머리
- ▲ 가정에서 피자를 주문할 경우 피자판만 받고 종이상자 겉포장은 몽땅 가져가도록 요구
- ▲ 아예 구입 때부터 쓰레기 발생요인을 없애기 위해 치약이나 장난감을 살 때 그 자리에서 포장지를 벗겨내는 새 습관이 도입됨
- ▲ '겉포장 안가져오기 운동' 확산
- ▲ 백화점 등 유통업체는 일시적으로 포장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연쇄현상을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체들이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을 줄이도록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 현물건 팔아드립니다-재활용전문매장(과천 미키하우스 등) 특수
- ▲ 재활용품 판매로 봉투값 충당

[표2] 양심 불량식 절감작전 연출

- ▲ 집에서 쓰레기봉지를 들고 나와 회사 쓰레기통에 양심도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압제족
- ▲ '컵라면 컵값 내라' 편의점들 백인이나 더 받아 가져서 먹는 손님에 '환경부담금' 명목(약짜마른 양제 상흔)
- ▲ 농촌 '물래 쓰레기' 몸살(도심서 차에 싣고와 버려)
- ▲ 음식쓰레기 한줌이라도 줄이자 '탈수기' 도입(수질오염은 어찌고)
- ▲ 쓰레기봉투 위조품 비상
- ▲ 쇼핑백으로 포장해 전동차 선반에 놓고 하자
- ▲ 역무원 감시 소홀 틈타 지하철 화장실에 버리기도
- ▲ 대학가 쓰레기 '몸살'
분리수거 개념 상실..... 양심실종
하숙촌 학생들 방안에 쌓아놓는 경우도
일부 압제파 가방에 넣어 학교에다 버려
- ▲ 쓰레기종량제 사각지대-서울주변 관악·불암·수락산 등산객들 분리수거 '모른 척'
- ▲ 서울 종량제 실시 연기 오보로-시골서 신정연휴를 보내고 상경하는 아들에게 야야, 서울은 종량제 실시 연기 되었다니 이 쓰레기 서울서 버려라-쓰레기 신고 상경중 고속도로상에서 "서울 종량제 연기는 오보"이고 "종량제는 '95년 1월 1일부터 전국 실시" 뉴스를 듣고-서울로 가져온 쓰레기 처리에 곤혹스러움을 겪는 헤프닝

[표3] 종량제 실시후 달라진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감량재활용품 증가—재활용품 배출요령 숙지 필요 ▲ 쓰레기도 버릴 때 돈이 든다는 인식 정착 ▲ 생산업계의 과대포장 자제 ▲ 리필제품 사용의 증가 ▲ 세계의 이목 집중—한국 쓰레기종량제 배우자 —일본 동경도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상황” 서울시에 자료 협조요청 / EU등 해외서 문의 잇따라 / 日 NHK선 준비상황·성과 등 직접 취재 ▲ 가정마다 직장마다 업소마다 쓰레기 줄이기에 비상 ▲ 기업도 종량제 비상 —쓰레기 적어야 판매 늘다 / “중고품 수거” 내걸고 판촉(박스 포장 지 업체서 회수) ▲ 도시락 제조업체에서는 스티로폴 등 1회용 식기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그릇으로 바꿀 계획 ▲ 올해 4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선거특수에 들떠 있던 판촉용제품 생산업체들은 종량제 실시 이후 이같은 제품에 거부감을 보임에 따라 조비상 ▲ 지금까지 비닐코팅 처리해오던 책받침·광고지 등 각종 판촉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로 대체할 방침 ▲ 버리기 아까운 중고품을 생활정보지 “매물 홍수”—지역정보지에 공짜물건 폭주 ▲ 시민들의 쓰레기 줄이기 움직임이 제조회사들의 과대포장을 크게 줄여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오염자 부담원칙’ 제조업체도 책임을 ▲ 뚜꺼운 비닐봉투 “하나알고 둘은 몰라” ▲ 종량제 봉투 씌는 비닐봉투 씌야—환경에 대한 굉장한 관심 ▲ 모든 음식점 퇴비화장비 권장해 불만 ▲ 재활용품 배출 검은 비닐봉투 무단투기요인—투명한 재활용 전용봉투 무료공급 ▲ ‘종량제’ 종류따라 증권주가 명암—제지·유화 호재, 기저귀·컵라면 업체 위축 ▲ 쓰레기종량제 덕보는 기업 많다—원자재난 해소 구입비 저렴 ▲ ‘환경친화’ 소파 등장 —정부가 쓰레기 감량이나 분리수거에 대해서 백번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쓰레기 수거료를 배출량에 비례해서 대폭 올리는 것,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 대폭 장려금을 올려 주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 ‘종량제’ 따라 생활도 변화 —고쳐쓰고 중고품 바꿔쓰고, 주부들 “버리면 돈들고 재활용 댄 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된다” 중산층 아파트촌 급속확산 ▲ 백화점 쓰레기종량제 “이색서비스” — 장바구니 사용고객 위한 “이색서비스” 등장 / 배달땀 포장쓰레기 “되받아오는 제도” 도입 ▲ 환경마크 ‘종량제’ 제기 정착 기회 ▲ 소비자 인식 개선—정부지원확대가 과제 ▲ 종량제가 반가운 “환경” 선구자들—포장혁신뒤 매출 늘어 현재 국내의 거의 모든 포장은 부피를 크게 줄일 여지를 갖고 있다. 환경규제를 극복하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유통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디자인과 포장의 개선이라고 강조 ▲ 유통업체 ‘쓰레기절감’ 경쟁—장바구니 대량배포, ‘그린쿠폰’ 제공도 ▲ 안타는 쓰레기 가득—소각장 “종량제 비상” 종이빠지고 음식물 비늘 급증, 태우는데 어려움 경유투입량 크게 늘어 ... 설계변경등 재검토 지적 ▲ 쓰레기 적은 상품 “덜물” 종량제 여파—설 선물용품 ‘포장최소화’ 바람 완충재 스티로폴 대신 골판지 사용 - 가전품 개별포장 안고 재활용 소재 용기로 - 화장품 씌는 비닐 쓰고 부피 최대한 줄이기 - 과자류 ▲ ‘그린서비스’ 제 운영- 대우전자 포장재- 폐가전품 무상수거 ▲ 백화점 쓰레기 줄이기 앞장 갈비백 가져오면 장바구니 제공 장바구니 든 고객에 쿠폰 증정 ▲ 백화점마다 “장바구니 고객 우대” ‘장바구니 신속 계산대’ 등장 ▲ H백화점 ‘비닐소핑백 안쓰기 선언’ - 모두 종이백 대체 - 업계 쓰레기 줄이기 경쟁 ▲ 간행물표지 코팅용지 사용 안한다. - S기업서 선언 ▲ ‘종량제’ 준비소홀 질타 - 국회환경위 ‘쓰레기대란’ 추궁 “조기실시 급급... 사전홍보 부족 재활용대책 안세워 취지 무색” ▲ “음식쓰레기로 퇴비 만들자” - ‘EM 발효통’ 확산 올해 백만가구분 보급-내무부 부산시 적십자사 20만개 배포 “앞장” 가정서 손쉽게 처리 ... 화학비료보다 양분 풍부 ▲ 대학도 ‘쓰레기와의 전쟁’ 나쳤다—소각로, 고속발효기 설치키로 / 형광등분쇄기, 병파쇄기, 캔압축기등 도입 검토 ▲ 기업도 ‘쓰레기 책임’
--	---

증가할 것이며, 기존의 플라스틱 코팅 및 라미네이팅 업계의 위축이 예상되는 등 포장업계에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제지업계

고지의 분리수거가 촉진됨에 따라 회수율이 높아지고 양질의 고지수집

이 기대되어 종이원료로 사용되는 고지의 수입은 줄어 외화절약이 예상되고 수급안정에 따라 94년부터 겪어온 제지업계의 고지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스티로폴 등 합성수지 포장재 대신에 재활용이 보다 용이한 펄프물드, 골판지, 크라프크지 등 종이

재질의 포장재로 대체사용이 증가하여 일부 종이제품의 판매신장이 예상된다.

3) 가전업계

소비자가 가전제품 구매시 포장박스 및 포장용 완충재 수거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

며, 이에 따라 이를 수거해야 할 판매점(대리점)은 수거비용 뿐만 아니라 처리비용의 부담도 지게 될 것이다.

분리배출시 스티로폼은 지역에 따라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수거된 스티로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부담주체 문제로 스티로폼 업계와 가전업체간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수거된 스티로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는 양업체간의 협의에 의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나아가 가전업체는 스티로폼 사용을 감량화하고, 단계적으로 스티로폼이 아닌 다른 포장용 완충재(펄프물드, 공기주입식 포장제품 등)를 개발, 적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4)플라스틱업계

플라스틱중 PE(폴리에틸렌)는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으로 연간 5백억원의 새로운 시장이 생김에 따라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PVC 필름의 사용량이 급격히 떨어져 관련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재생가능한 폐플라스틱 회수가 증대됨에 따라 신재원료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5)유리병 업계

폐유리 수집률 향상으로 폐유리 가격인하가 예상되고 분리수거에 따른 폐유리 품질향상이 기대되므로 재생유리병 생산원가 절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음식료 용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이팩, PET병, 금속캔은 유리병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6)재활용업계

캔 압축기 및 선별기, 파쇄기, 음식물 고속퇴비화기 등 재생처리시설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될 전망으로, 재활용설비 제조업체는 호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수집상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분리배출됨에 따라 수집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중고 가전제품 등을 수집·판매하는 업체도 호황이 예상된다.

7)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유통업계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제품구매시 포장재를 벗겨내고 제품만 가져가는 소비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는 대량 발생하는 포장재 쓰레기 처리를 위해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맞추어 생산업체가 제품의 포장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포장재 처리비용이 점차 감소되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편의점, 패스트푸드업체는 다른 업계에 비해 쓰레기 발생이 많은 특징 때문에 상당한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통상산업부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 이후 국제환경규제가 오염물질의 단순한 사용제한·금지에서 환경 친화적 방법에 의한 상품 제조·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공업발전법 등 현재의 일부 개별법에 규정돼 있는 환경친화적 산업이나 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을 새로 만들 법에 포함시켜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추진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이 법에 우리의 산업구조를 자원절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실천방안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ISO 14000(국제 환경경영규격) 제정에 대비, '환경 KS'를 만들고 인증기관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기로 했다. 통산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만들어 관련부처 협의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4. '환경 KS' 제도 도입 검토

정부는 국제환경규제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면서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배려 활동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10개 주요 업종별 '산업환경비전'을 마련, 추진과제 및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